

# 신성기하학 이야기

| 최현목 네츄로메디카 대표 |

어려운 기하학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자신과의 진솔한 만남을 시작하는 도구로서의 신성기하학을 말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우리는 흔히 기하학적 구조로 이루어진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해바라기 꽃에 조밀하게 매우고 있는 씨앗들의 패턴, 바닷가 소라의 나선 모양, 완벽한 대칭을 이룬 사람의 몸과 동물·식물 등. 매우 정교한 패턴 속에 어떠한 질서가 갖추어진 듯...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오묘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사실 기하학(Geometry)은 말 그대로 ‘토지 측량’이란 뜻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한 뒤 없어진 경계를 되찾는 농지측량의 기술로서 시작되었고, 그 측량술이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기하학(幾何學)이라는 수학적 체계로 발전시켜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인류의 공간관의 변천은 항상 새로운 기하학이 뒤따르게 했고, 고대 유클리드기하학에서 현대 위상기하학, 사영기하학, 프랙탈 기하학까지 무한의 공간을 인지하려는 인간의 끊임 없는 노력의 소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기하학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해보자.

매일 일상 속에서 많은 사물들과 사람, 동·식물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시각중추를 자극하여 우리의 의식세계에 들어온다. 인류는 시각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는 데 익숙하며 다른 감각기관보다 월등히 시각 기능이 발달된 편이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매우 연약한 육체적 조건을 갖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시각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인간만의 특유한 면을 지적해주는데 인간의 지각기능 중 시각은 공간 속의 사물들에 대해 기하학적으로 인식하며 식별하는 특수한 형식을 갖추며 진화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을 순간 보더라도 그 크기, 전체 모양과 패턴을 시각적 기억에서 빠르게 기하학적 이미지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지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내재된 지성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든 시각적 모델로 바꾼 후, 그 속에 질서를 통찰하는 사유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원 ○의 도형에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과 ●의 도형에서 그 변화이치를 터득했던 고대인의 통찰력을 상상해보면 좋겠다.

알고 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다. 우리들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지성을 이미 부여받은 채 태어났다는 의미이자 가능성이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의 양쪽 눈의 대칭과 거리, 얼굴과의 조화를 이미 잘 알고 있어 한쪽 눈을 무언가로 가리거나 비뚤어지게 하면 곤장 울어버리고 만다.

이상하게 생긴 곤충이나 바다 속 어류들의 기기묘묘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것을 괴물이라 느끼진 않고 하나의 정물로 빨리 친숙해진다.

왜 그런 것일까?

정물(正物)과 괴물(怪物)의 차이는 본능적으로 자연계의 기하학적 질서의 유무(有無)일 뿐이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황금비에 따른 자연의 모습에 자신이 얼마나 친숙해져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자연을 통해 각인되어진 우리 내면속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 편안함도, 불안정함도, 아름다움도, 불쾌함도 느끼게 하는 원형(原型)이 존재하는 것이다.(그림1)

따라서 인간은 무의식중에 자신이 갖는 공간의 개념을 현실에 반영시키게 되고, 사물의 지각과 인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대인관계, 상황처리, 지능, 감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 나아가, 공간개념은 시대에 따른 예술과 건축물로 탄생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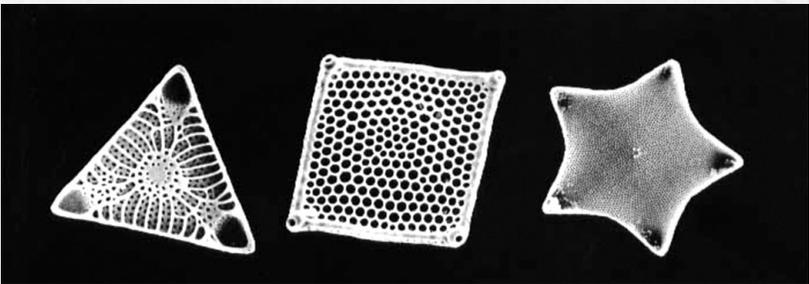


그림 1

종교와 문화가 되어 인간의 의식세계를 통솔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아랍의 사막민족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는 마치 천막처럼 둥글게 생긴 공간으로 폐쇄적 공간이라고 인식하였다. 무한히 펼쳐진 드넓은 사막에서 바라본 하늘이란 공간은 불안과 공포감마저 주었기에, 그들의 건축양식은 모두 내향적이고 방어적으로 되어있다. 심지어 정원을 건축물 안에 구성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제 한걸음 나가서 신성기하학(Sacred Geometry)이란 무엇인가?

먼저 Geometry 앞에 Sacred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기하학의 수학적 차원을 넘어 신이 부여한... 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곧, 신성(神聖)이라는 뜻으로 영성적 의미가 부가 으로서 우주에 담겨진 신령스런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성기하학은 인간 내면에 각인되어진 우주의 원형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신성의 언어-그 상징체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해가도록 인도한다.

고대에는 철학과 수학, 예술과 기하학이 우주와 생명을 이해하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다고 한다. 물질과 형상, 그 운동성과 규칙성이 곧 신에 대한 이미지이고 유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고대인들의 사고(思考)에 의해서다. 우주의 질서는 신이 부여한 법칙이며 그것에 대한 인간의 지적 열망과 탐구가 발전시켜나간 학문으로 신성기하학이 오늘날에 소중히 전해진 것일 것이다.

플라톤이 자신의 학당 아카데미아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라는 경구(警句)를 붙였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천체운동의 신비를 풀려했던 케플러나 프톨레마이오스는 신과 우주자연을 이해하는 철학이자 자연 과학으로 신성기하학의 영감이 절대적으로 그들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파치오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대가들은 바로 그 세계를 봄으로써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맛보았을 것이다. 점, 선, 면, 원, 방, 각, 다면체들의 구성 속에 간직된 수학적 본질과 아름다움의 느낌들— 그곳에 깃든 완벽한 균형과 대칭들은 우주의 지혜를 정교히 표출해 내고 있는 것 같다.

신성기하학에서는 추론과 유추의 기준이 되는 도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된다. 이들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과 구, 정다각형과 같은 완벽한 대칭성을 갖춘 도형들이다.

사물에 내재하는 다품과 비례, 그 속에 조화를 발현하는 수(數)의 법칙성과 규칙성. 즉 수학적 질서에 의해 구성된 사물들의 변화—상(象)과 수(數)를 통한 철학이 로고스(logos)를 이해하는 가장 원적 방법이기 때문에 동서를 넘어 그토록 강조되었던 것이라 사료된다.

“만물의 하나인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 로고스를 인식하는 것 안에 지혜가 있다”

—헤라클레이토스(BC 544-484)

신성기하학에서 공간의 지각은 시각을 통해 얻고 사물의 위치관계를 통해 모양(형체)을 인식한다. 그것의 패턴을 단순화시켜 도형적 이미지로 사유함으로써 인식의 범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정신의 공간으로 이동된다. 이러한 소박한 공간에 대한 생각이 점차 절서

정연한 수학적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연의 조화로운 세계를 경험케 한다. 무한한 상상은 우리의 공간인식의 원형으로부터 시작되어 우주관, 신관, 진리관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

그럼 신성기하학에서 중요시여기는 것들은 무엇일까?

신성기하학에서 기초적으로 다루는 수학은 파이( $\pi$ ), 황금비( $\Phi$ )와 피보나치수열, 피타고라스 법칙이 있다.

$\pi$  (3.141592653589793.....)

$\Phi$  (1:1.618033988749894.....)

Fibonacci (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377. 610...)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확한 특정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무리수(irrational)들이다. 이 수와 도형들이 그려내는 추상적 세계가 주는 헤아릴 길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과 존엄함을 느껴보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조화로운 법칙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성기하학은 단순히 수학적으로 옳으나 그르냐의 논증이 주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 우주에 대한 어떠한 감응을 얻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 여기서 감응이란 시공간에 짜여진 매트릭스(Matrix)속 어느 곳에서나 에너지의 법칙과 연결되어 무한히 흐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느낌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원(圓)

신성기하학에서 가장 근본 되는 도형은 다름 아닌 동그라미-원(圓)이다. 원에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나며 그 원 속에는 모든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무한히 반복되지도 종료되지 않는 무리수(irrational)- $\pi$  파이와의 만남이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신성기하학 작도법들이다.

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의 시공간을 표상한다. 어떠한 콤팩스나 장비도 완벽한 원은 그릴 수 없으며 자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원은 점도 아니며, 면도 직선도 아니다. 그러나 원은 구(球)의 원형(原型)이며, 모든 도형과 입체를 탄생시키는 창조 의문이다.

작은 미립자에서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원은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성을 너무도 명백히 드러낸다. 어린 아이들은 제일 먼저 원을 인지하고, 원을 그리려하고 끊임 없는 원운동을 통해 자신을 발달시킨다. 내면에 각인된 무의식적 정보들이 원의 신비한 힘에 의해 정확히 작동되어 개체적 자아의 특성을 정교히 짜내가는 지도 모른다.

원은 하나(一)를 상징하고 모든 것(전체)이자 낱(부분)이다.

가장 신성한 이미지로 우주 만물의 상(像)이다. 신성기하학에서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할 주제이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안에 진정한 철학이 있으며 우주적 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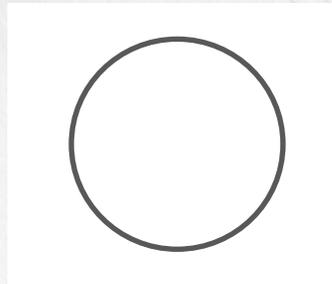


그림 2

고대인들은 직관으로 알았을 것이다.

자신 속에 이미 각인된 우주적 자아의 실재를 원을 통해 일깨울 수 있으며 가장 쉽게 그럴 수 있는 수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루보스의 뱀처럼 자신에게 나타나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의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꼬리라는 것을 진정 깨닫는다면 도형으로서의 원이 아닌 우주를 닮은 본성의 원형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그림2)

## 정다면체

플라토닉 솔리드(Platonic Solid)라 불리는 5개의 정다면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플라톤보다 훨씬 이전에 발견되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의 조건에서는 5개의 정다면체 이상은 성립될 수 없으며 5가지의 구성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다면체의 성립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체도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한 꼭지점에 모이는 정다각형의 개수가 모두 같다.

셋째. 오목이 아니라 볼록 모양의 다면체이다.

따라서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의 5개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신비한 특성들을 지니는데 정다면체의 각 면의 중앙에 점을 찍고 그것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그 안에 하나의 다른 입체가 생기게 된다.

정6면체는 6개의 면이 있어 그 안에 정8면체가 형성되고,

정8면체는 8개의 면이 있어 그 안에 정6면체가,



그림 3

정12면체는 내부에 정20면체를, 정20면체는 정12면체를, 정4면체는 정4면체를, 이런 식으로 도형들이 “수학의 쌍대의 원리”를 만족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정다면체의 연구가 신성기하학에서 우주의 원소,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에테르(ether) 5원소와 결부되어 수학적 이해를 우주관으로 발전시키고도 있다. (테트라티스 (Tetraktys)의 연구)

불은 정4면체, 흙은 정6면체, 공기는 정8면체, 물은 정20면체, 그리고 4원소를 간직하고 있는 정12면체를 에테르 - 대우주의 원소들로 고대 신비사상과 연결하여 연구하고 있다.(그림3)

### 작도(作圖)

기하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작도(作圖)의 그림은 증명의 방법에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눈금 없는 자와 콤파스만을 사용한다.

신성기하학에서 작도란 마치 서도가의 손끝에 쥐어진 붓과도 같다. 약간의 정신을 흐뜨리면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만다. 육안이 지닌 착시현상을 극복하고 무심한 상태로 오로지 선을 그어가는 것이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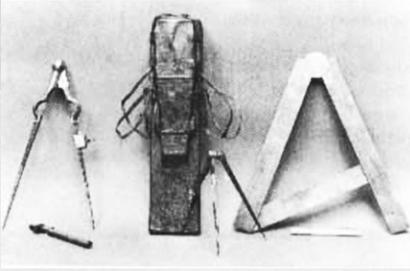


그림 4

어렵다. 단순해지는 법을 배운다.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인식하고 순간 속에 숨 쉬어야 한다.

신성기하학의 작도는 자신의 내면속에 원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 신성기하학의 작도에서 다루는 몇 가지 실예를 들면

Vescia Picise -창조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원 속에서 십자가와 삼각형, 사각형, 여러 다각형이 창조되어 펼쳐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우주의 자궁이 열리며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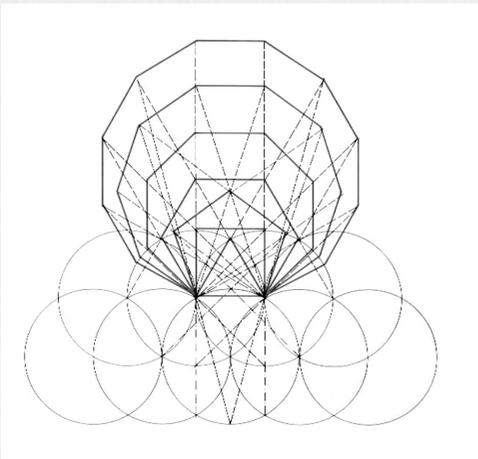


그림 5

이를 통해 하나에서 모든 것의 형상과 그 관계들이 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면체를 이루는 수(數)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면 훌륭한 작도훈련이 될 것이다.(그림5)

### Tetraktys – 생명

플라토닉 솔리드(Platonic Solid)라는 다면체들이 서로를 연속된 공간 속에 융합된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된 관계의 사슬을 볼 수 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일정한 규칙을 잘 따른다면 자신도 모르게 멋진 그림이 생동감 넘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생명의 존엄함을 느껴보는 것이 본 작도의 주제이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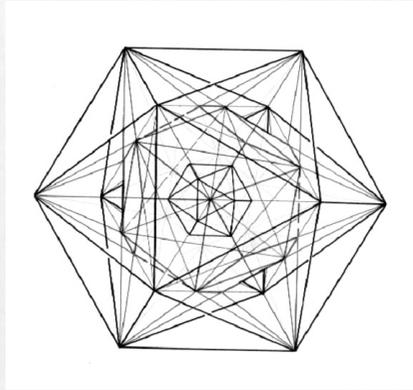


그림 6

### Golden Spiral – 변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과 그 형상으로 스파이럴 패턴의 기하급수적 무한진행의 모습이다. 다이내믹한 곡선들의 이어짐과 철저히 계산된 우주의 변화 수리법칙을 엿볼 수 있으며, 변화속성과 과정(process)을 상징하며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언어로 다가갈 수 없었던 순수 그 자체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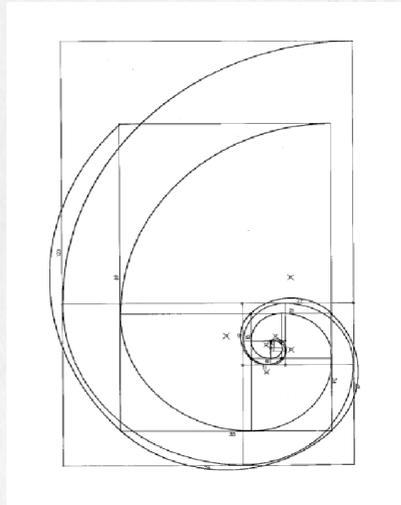


그림 7

사실 신성기하학은 어려운 학문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

빈 종이에 동그라미, 별모양을 낙서처럼 쉽게 시작하며, 자신이 그려내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 어려운 수학계산법도 없으며, 전자계산기를 누를 줄 알면 그만이다. 보다 중요한 건, 만다라나 선화(仙畵)를 그릴 때처럼 마음을 비우고 자신과의 진솔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우주로부터 깃들인 고유한 그 무엇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면 된다.

신성기하학이 신비건축가나 연금술사들과 같은 특수한 목적만이 지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법인양 비전되는 것보다, 그 핵심 내용과 철학만큼은 구도하는 모든 이들이 우주로 친밀하게 다가가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길 바라며...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최현묵** | 네츄로메디카-홀리스틱의학 아카데미 원장. 생명정보분석연구소 소장 역임. 캐나다 네츄럴헬스사이언스 전공(NHS). 저서) 알렉산더 테크닉, 후두천골요법(SOT), 렌트겐검사법 등. 현재 통합치유시스템에 대한 연구, 집필 중.